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중앙은행들, 마이너스 금리 · QE 리스크에 수익률 커브 컨트롤 고려
  - ◇ (분석)-비트코인 이번에도 다시 거품?
  - ◇ (초점)-다음주 CD 대체 지표금리 최종 표결..RP 대세론속 만장일치 여부 '촉각'
  - ◇ (시장진단)-외환당국, 원화 일방통행에 급제동..달러들 "개입 강도 이례적"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폐쇄령이 내려진 뒤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로이터/브렌단 맥더미드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2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14.3	0.1%	3.8%	-3.5%	유로	1.1853	0.2%	5.7%	-2.3%
100엔 대비	1,073.5	-1.4%	-1.0%	-4.4%	엔	103.85	0.7%	4.6%	0.9%
유로 대비	1,321.6	-0.8%	-2.1%	-1.3%	위안	6.5833	0.4%	5.8%	-1.3%
위안 대비	169.83	-1.3%	-2.4%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9,263.48	-0.7%	2.5%	22.3%
코스피	2,553.50	2.4%	16.2%	7.7%	나스닥	11,854.97	0.2%	32.1%	35.2%
코스닥	870.18	3.7%	29.9%	-0.9%	S&P500	3,557.54	-0.8%	10.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625.20	2.0%	13.1%	15.8%
국고채 3Y	0.963%	-0.2bp	-39.7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299%	0.1bp	-18.1bp	-40.4bp	미국채 2Y	0.161%	-2.0bp	-140.0bp	-93.7bp
국고채10Y	1.607%	-2.0bp	-7.6bp	-26.5bp	미국채 10Y	0.824%	-7.4bp	-108.6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2.42	5.7%	-30.5%	34.5%	한국 5Y	21.4bp	0.1bp	0.4bp	-17.0bp
금(현물)	1,870.49	-0.9%	23.3%	18.3%	일본 5Y	14.8bp	-0.2bp	-2.9bp	-4.0bp
TR상품지수	2,727.52	2.1%	9.7%	4.8%	중국 5Y	32.0bp	1.4bp	1.4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1월 23일(월)>

- 관세청, 11월 1-20일 수출입 동향

### <24일(화)>

- 한은, 11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12:00)

### <25일(수)>

- 한은,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3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9월 인구동향/10월 국내인구이동(12:00)

### <26일(목)>

- 금강원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06:00)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
- 한은, 경제 전망(13:3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1차관 브리핑(10:30)
- 기재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 <27일(금)>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 한은,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3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12: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1월 23일(월)>

- 유로존, 11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10월 전미활동지수 (23:30)
- 미국, 11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일본 휴장

### <24일(화)>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1월 비제조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2:30)
- 미국, 9월 주택가격 (23:00)
- 미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 <25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10월 개인소득·PCE 가격지수·내구재 주문·도매재고·소매재고 (22:30)
- 미국, 3분기 기업이익 잠정치·GDP 수정치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 (자정)
- 미국, 10월 신규주택판매 (자정)
- 뉴질랜드, 뉴질랜드 연방은행 금융안정보고서·기자회견

### <26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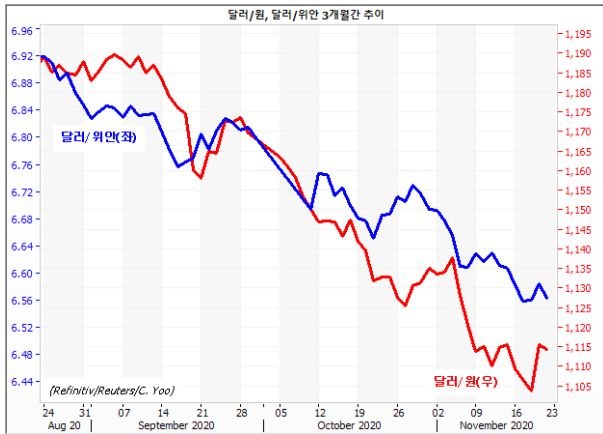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11월 4-5일 정책회의록 공개 (04:00)
- 유로존, 10월 총 유동성(M3) 증가율·가계대출 (18:00)
- 미국 휴장

### <27일(금)>

- 중국, 10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11월 기업환경지수·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최종 (19: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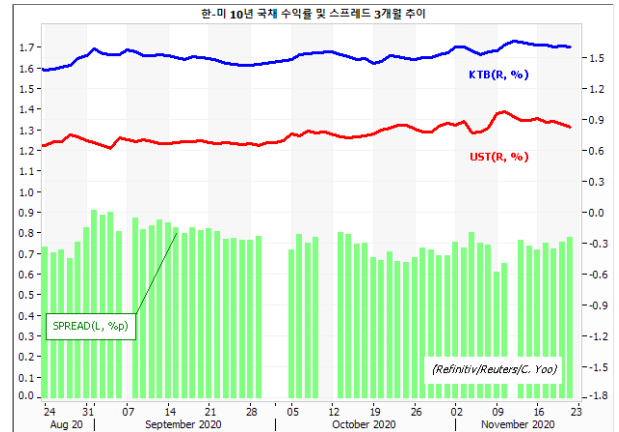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빅 피겨를 향해 급락하다가 당국에 저지당한 달러/원 환율이 이번 주에는 국내 코로나 19 확산 가속화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응과 글로벌 달러 동향을 따라 움직일 전망이다.
- 국내 주식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코로나 19 재확산 가속화 및 정부의 전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격상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건이다.
- 미국에서 백신 사용이 승인되고 보급이 시작되리라는 믿음이 있는 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이번 주 해외 경제지표 및 이벤트는 대체로 코로나 19 재확산 영향에 부진한 전망 지표와 최악에서 반등하는 실물경제 지표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발언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의사록 공개 등도 예정돼 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일부 초대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내에서는 23일 관세청이 11월 1-20일 기간 수출입 동향 잠정치를 발표한다. 이 자료에서는 계속된 수출 회복세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속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소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채권시장은 대내외 코로나 19 확산과 금통위 회의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이 코로나 19 백신의 전 세계적 유통 속도와 지역별 경기 회복 편차 등을 감안한 내년도 투자전략을 세워 나가는 시기라는 점이다.
- 중장기적으로 채권에 부담을 주는 여건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단기 재료를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 문제가 어떻게 다루질지 가능할 필요가 있다.
- 경제 전망이 8월보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의 코로나 19 확산세를 감안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불확실성 요인을 좀 더 강조하며 '톤 다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한국은행은 24일 11월 소비자동향조사, 25일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26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다.

**(분석)-중앙은행들, 마이너스 금리 · QE 리스크에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고려**

런던 (로이터) -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타격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수익률 커브 컨트롤(YCC) 도입을 점점 더 고려하고 있다.

국채 수익률은 기업 및 소비자 대출시 참고하는 금리로 활용되기에, 이를 통제하는 것은 광범위한 경제의 신용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미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와 공격적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커브 컨트롤 도입은 수익률 곡선의 일부분에 한계를 부여한 뒤, 필요할 때 해당 만기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수익률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수익률 커브 컨트롤이 정부의 차입 비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채택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지지자들의 생각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과 같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중앙은행일수록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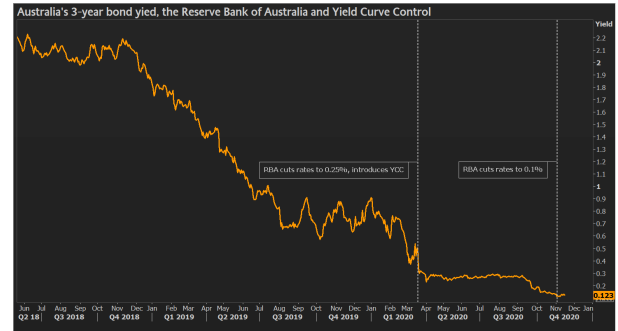
경제 전망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면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지난주 분명해졌다. 지난주 화이자 백신 소식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난 3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인 14bp 올랐다.

내년 경제 활동이 반등하면 수익률은 더 상승할 것이고, 이는 경제 회복세를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큰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픽택 웰스 매니지먼트의 토머스 코스터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수익률 커브 컨트롤의 이점은 실물 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암시적으로 보장해 기업들이 미리 정해진 금리로 투자할 수 있는 확실성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은행과 기업들은 주로 3년 만기로 대출을 받기에, 호주중앙은행은 3년물 금리를

0.1% 부근으로 유지하기 위해 3년물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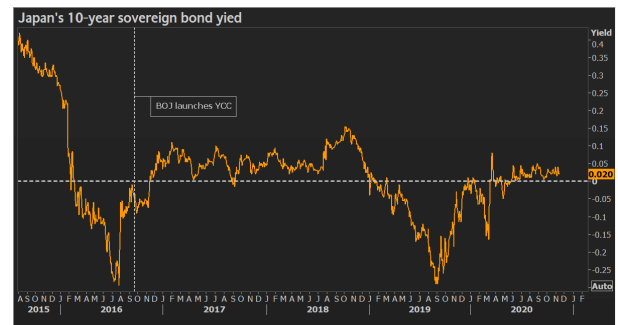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정책, 새로운 위험

연준은 1940 년대에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도입한 적이 있다. 일본은행은 2016 년, 호주중앙은행은 올해 3 월에 이 정책을 채택했다.

연준과 영란은행은 수익률 커브 컨트롤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지지하지는 않았다. 연준은 이 정책이 현재로서는 큰 이점이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수익률 커브 컨트롤은 양날의 검이다. 이 정책을 통해 차입 비용은 줄었지만, 은행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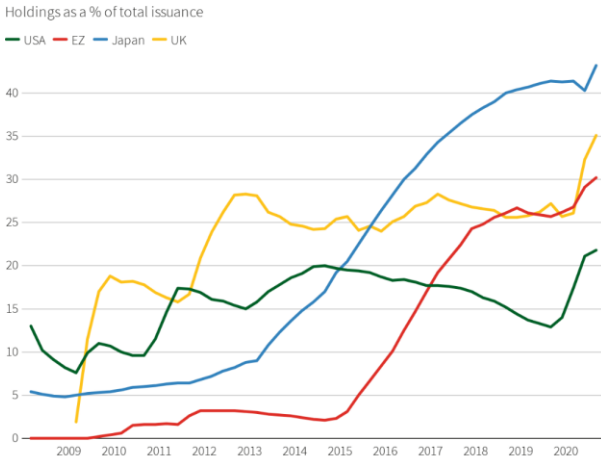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이미 포워드 가이드를 통해 금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 커브 컨트롤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커먼웰스 은행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의 마틴 휘튼 채권 및 외환 전략 헤드는 호주에서 3년물에 초점을 맞춘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은 신용 여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유동성을 고갈시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지지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나타났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적 채권 매입이 심화되고 있는 채권 시장의 경색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Central bank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Note: Forecast for Q3 2020  
Sour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Haver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매입은 다른 매입자들, 특히 연기금에게 적절한 수준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로열런던 에셋 매니지먼트(RLAM)의 크레이그 인치금리 및 현금 담당 헤드는 "장재적으로 수익률 커브 컨트롤은 0-10년물 수익률의 상한을 제한할 것이고, 장기물은 향후 경제 성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연기금에는 좋은 시나리오이며, 중앙은행들이 고려하는 사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시기?

수익률 커브 컨트롤 도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장기물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 즉 커브 스티프닝 발생할 경우다.

연준은 단기물 수익률은 제로 부근으로 유지하지만, 시장은 주요 기준금리인 10년물 수익률을 주시하고 있다.

코스터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현재 0.9% 부근에서 1.5%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연준이 행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 좀 더 복잡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독일과 남유럽 국채의 수익률 스프레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수익률 커브 컨트롤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악사 인베스트먼트의 길레스 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내 수익률 커브 컨트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지속적이고, 강력하며, 선별적인 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재정 정책을 강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만약 ECB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분석)-비트코인 이번에도 다시 거품?

런던 (로이터) -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열광적인 소액 투자자들이 적은 것은 이번에는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희망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주된 거래 화폐가 아니라는 점과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래리 서막 더블록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은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서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소액 투자자의 참여는 매우 적다.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유동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나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는 매우 위험하며 확실히 안전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8일(현지시간) 1만 8,000달러를 넘어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비트코인은 160% 급등 중이다.

올해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 2017년을 떠올리게 한다. 2017년에 비트코인은 소액 투자자의

러시로 인해 근 2만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1개월 후 50% 이상 급락했다.

그러나 2017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매우 잘 정비된 파생상품 시장과 금융기관 보관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다.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이번 주 2017년 12월 론칭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크립토 데이터 제공업체 스큐에 따르면 주요 옵션 시장에서 포지션은 40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한편 피델리티 투자와 노무라 지주를 포함한 거대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작했다.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CEO는 "2017년과 현재는 시장의 성숙도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7년에는 파생·신용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규격화된 관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인프라의 등장으로 헤지펀드를 포함한 기업들은 암호화폐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

팀 스완슨 클리어매틱스 총괄은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은 3년 전과 달라졌고 투자자들의 유형은 다양화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유동성은 강화됐고 가격 불안정성은 약화됐다.

규제도 발전했다.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가장 규제가 덜한 곳이지만 반자금세탁(AML)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등장으로 거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초점)-다음주 CD 대체 지표금리 최종 표결 착수..RP 대세론속 만장일치 여부 '촉각'**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Risk-Free Reference Rate, 이하 RFR)를 결정하는 최종 선정작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현재 최종 후보로 올라 있는 은행·증권금융 차입 콜금리와 국채·통안채 담보 RP 금리 중 RP 금리가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지표

금리 선정 투표에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 그룹 전원의 동의를 단번에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표금리 다음 주 최종 표결..'콜 금리 불가론' 적지 않아**

한국은행과 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대체 지표 개발 작업반은 다음 주 열리는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에서 RFR 최종후보 관련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이후 3~4일 동안 26개 기관으로 구성된 시장 참가자 그룹(MPG, Market Participants Group)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그 결과를 집계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최종 후보에는 은행·증권금융 차입 콜금리와 국채·통안채 담보 RP 금리가 올라 있다.

은행·증권금융 차입 콜금리는 은행의 차입 여건을 잘 반영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RP 거래 활성화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RP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데다 금리의 경직성이 커 CD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P 금리의 경우 외부 여건 변화에 반응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담보를 국채·통안채로 한정하면서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A 은행 자금부장은 "시중은행의 콜금리는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변동성이 없었다"며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콜금리가 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기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준금리 대비 2bp가 변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여러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게 RP"라며 "거래량이나 무위험금리라는 측면에서도 RP로 결정되는 게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B 은행 이자율 딜러는 "콜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많은 은행이 콜 금리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RP 가 지표금리로 선정될 이유보다 콜 금리가 지표금리로 선정되지 않을 이유가 많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만장일치 안 되면 최대 5 회 회의 열릴 듯

시장에선 국제·통안채 RP 금리가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될 가능성을 크게 보지만, 표결에 참여할 시장 참여자 그룹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은은 다음 주 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번의 회의를 더 진행해 표결 참가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 차례의 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네 번째 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다섯 번째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후보를 무위험지표금리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단 토론을 거친 후 소수의견을 낸 곳들과 개별접촉해 의견을 바꿀 수 있을지 타진하고 다음 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세 번의 회의에서도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그때 가서 기준을 완화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환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위험지표금리가 결정된 곳은 영국뿐이라 우리도 비슷하게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은 지점의 한 관계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고 신뢰성 있는 후보가 콜 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증권금융이 포함돼 시장 상황도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첫 토론에서 지지가 압도적으로 한쪽에 쏠리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시장진단)-외환당국, 원화 일방통행에 급제동..딜러들 "개입 강도 이례적"**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최근 거듭된 경고에도 원화의 강제 일방통행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국이 19 일 재차 경고에 이어 달러 매수 개입을 했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강제 저지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건이 아닌 외환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2 개월간 원화가 세계 주요통화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으며 환율의 한 방향 쏠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환율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원화가 위안화에 무조건 동조화되는 경향마저 불편하게 여겼던 당국 입장에서 최근 위안화보다 원화의 절상 속도가 빨라진 점을 두고 이를 쏠림의 징후로 해석해 왔다.

지난 9 월 말과 비교해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 4% 절상된 한편 원화는 6%가량 절상됐다.

이어 김용범 기재부 1 차관의 환율 쏠림에 대한 경고 발언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최근 과도한 환율 변동은 수급보다는 심리적 영향 때문이라면서 단기적인 환율 급변동에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같은 강력한 외환 당국의 경고 메시지와 함께 강도 높은 실개입이 단행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당국의 변동성 관리를 위한 개입 강도보다 이날 개입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6 일 외환 당국은 환율 쏠림 경고에 이어 달러 매수 개입을 단행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환율 변동성 관리에 대응한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추정했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어느 때와 달리 오늘은 당국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B 은행 외환 달러도 "오늘은 당국 개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긴장감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날 2년 5개월 만의 최저치인 1103 원 선까지 빠져 1100 원 하향 이탈 가능성을 높였던 환율은 장 중 10 원 넘게 올라 1115 원까지 속등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증공업 등을 비롯한 네고 매물도 일부 소화되면서 환율은 1110 원 중반대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날 환율이 힘없이 되밀릴 것을 전망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많지 않다.

C 은행 외환 달러는 "환율 반등에 네고 물량이 꽤 유입되고 있다"면서도 "당국이 오늘은 최근에 보기 드문 형태로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율이 쉽게 빠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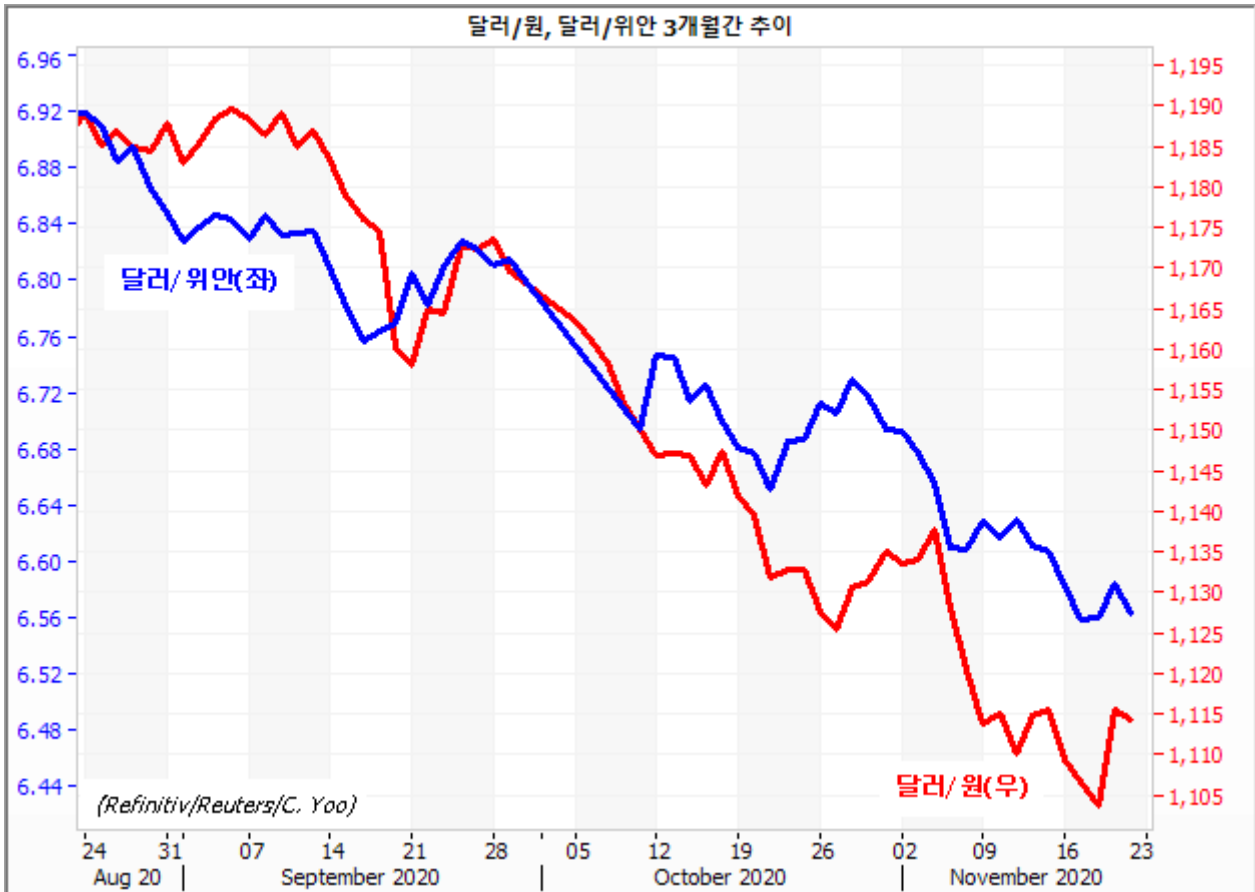
D 외환 달러는 "여러 아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개입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면서 "외인들의 공격적인 주식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한 환율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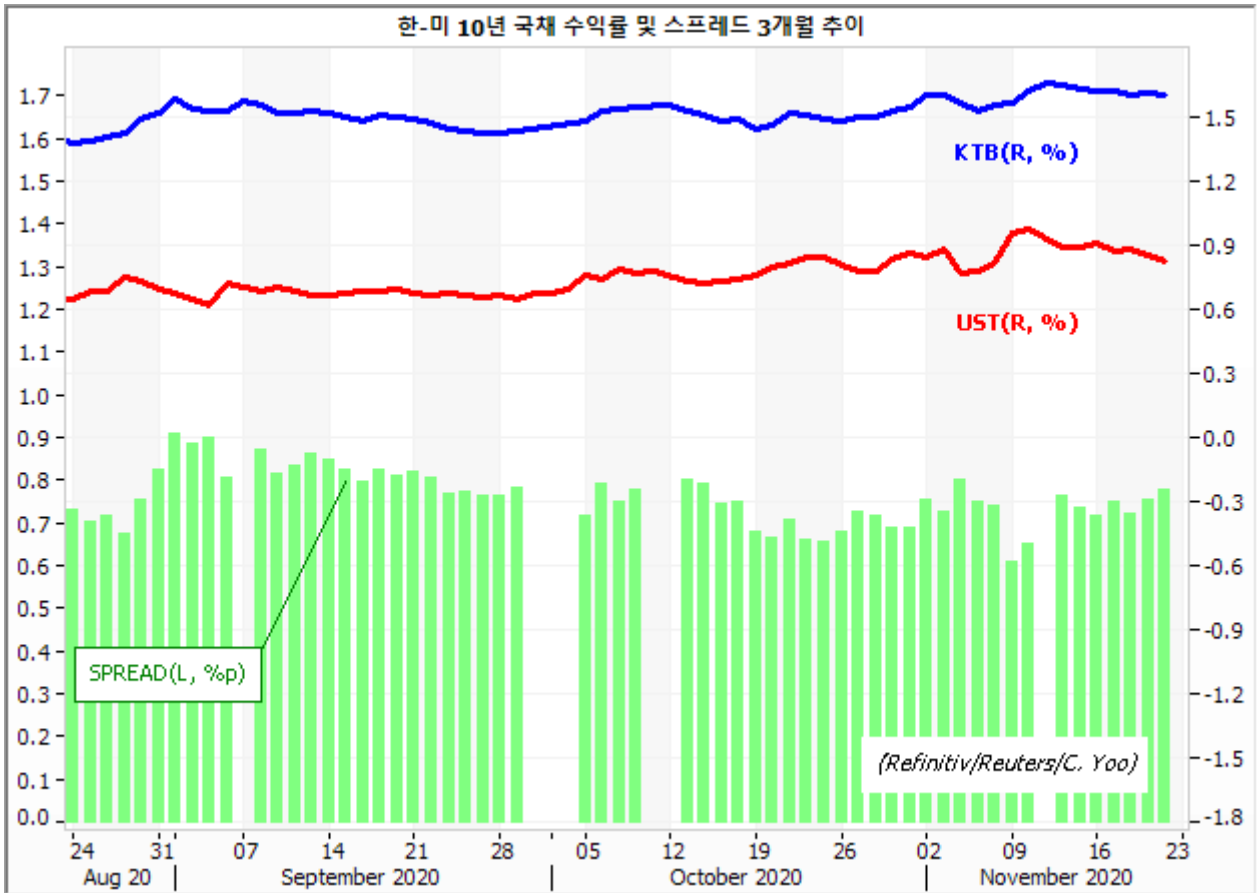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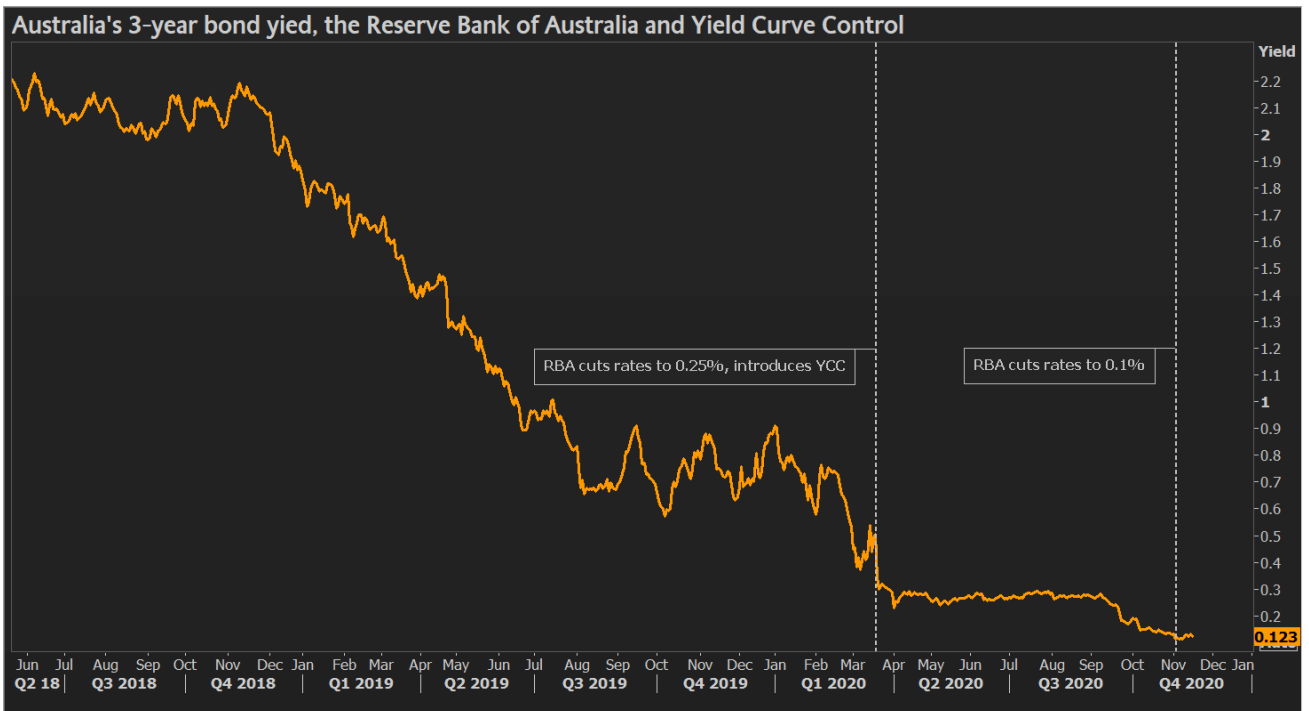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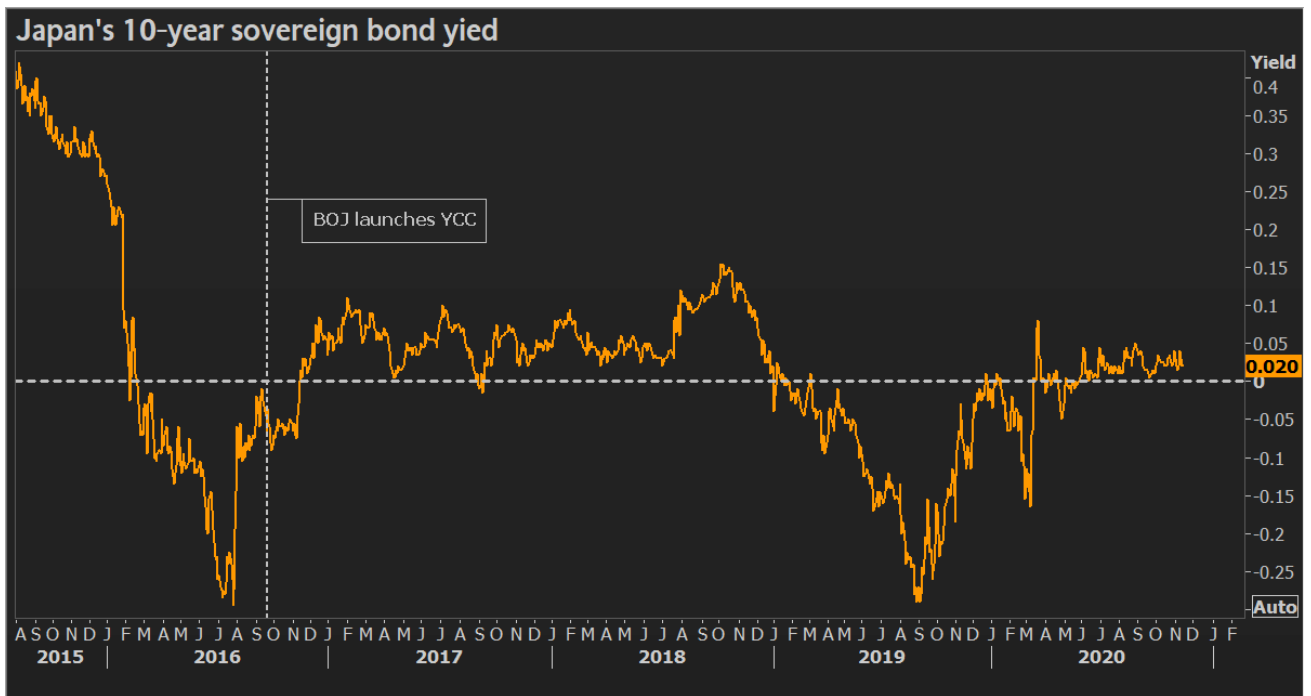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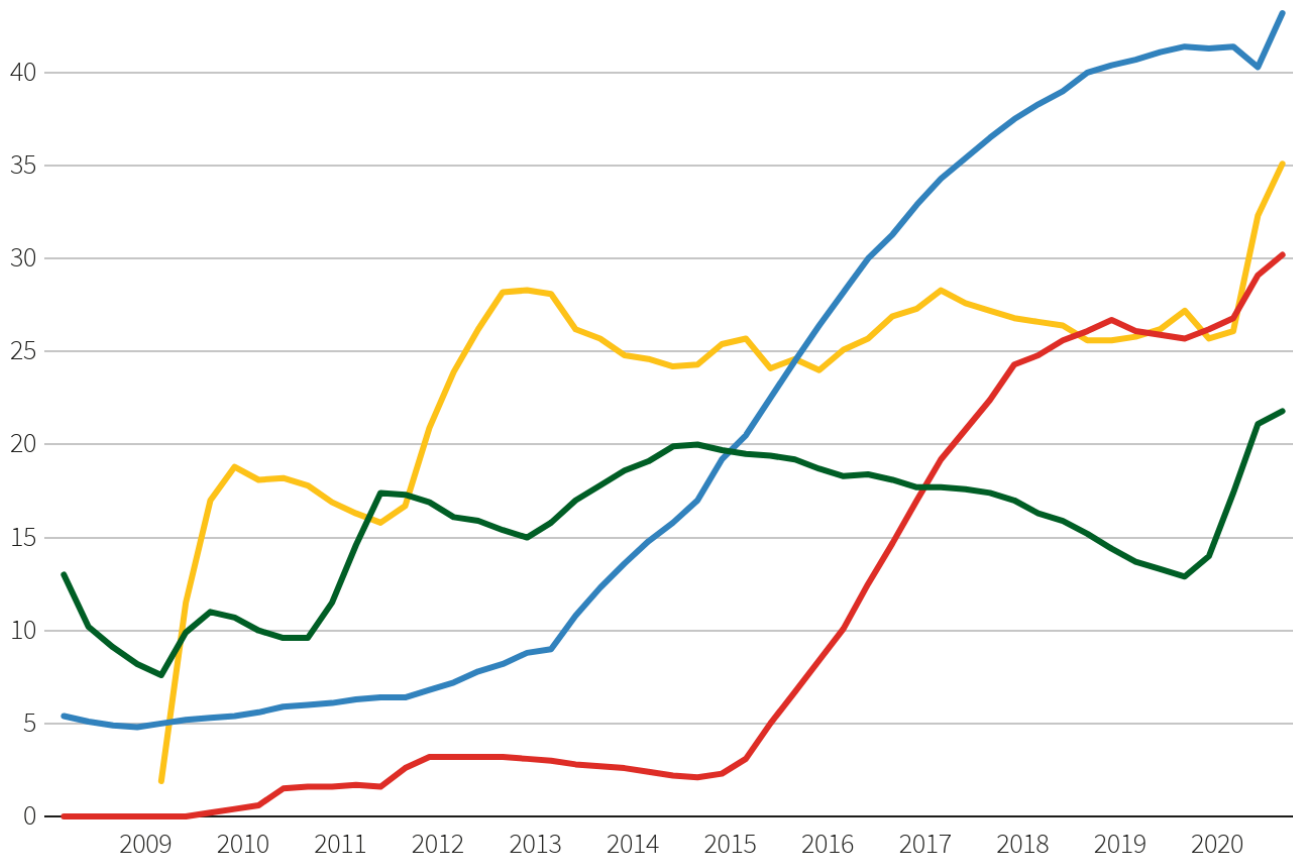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Central bank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Holdings as a % of total issuance

USA EZ Japan UK



Note: Forecast for Q3 2020

Sour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Haver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